마음과 육체 사이의 거리감

(고후4:1~6)

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과 육체 사이의 거리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과 육체 사이의 거리감!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아! 나 집 밖에 나와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집 밖에 나와 있다, 또 집이라는 말을 안 쓸 때가 많아요.
'응~ 나 지금 그냥 밖에 나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나의 위치를 우리가 의식할 때에, 무언중에 집이 기준이 됩니다.
나 지금 집에 있어, 아니면 집 밖에 나와 있어.
그냥 집 밖의 장소가 여러 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장소를 얘기할 필요 없고, 또 번거롭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번거로울 때 우리는, 밖에 나와 있어, 아!

나 지금 집에 있어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집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나와 있을 때, 밖이라고 말하는 것은, 집으로부터의 거리감을 전제로 하고 느끼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한 30분 뒤면 집에 들어갈 텐데, 그때 내가 다시 전화할게!' 거리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본사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일이 잘못돼 가지고 멀리 완도에 출장소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항상 마음에 본사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밀려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 파견 나와 있다' 그러니까 본사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마음이 머물고 있는 본래의 처소가 본사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파견 나와 있게 되거든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애인이 한 달 동안 외국에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애인으로부터 내가 지금 거리감을 느낍니다.
왜 그래요?
마음은 애인에게 있고, 육체는 이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과 육체 사이의 거리감, 이것이 지금 바울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4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도권의 특징이라는 거애요.
이 거리감, 마음과 육체 사이의 거리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거리감은 자각증상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나의 사도됨에 대한 자각증상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이 거리감을 근본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바울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본문을 얼른 보면, 조금 마음에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씀사역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낸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행위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가능한 가능성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그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망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 귀신들에 의해서 혼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도취된 상태에 대해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자뻑! 자뻑의 왕이다, 자뻑의 여신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뻑 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뻑처럼 보이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라면 사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그러면, 반드시 스스로 느껴야 되는 사도됨의 자각증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각증상들, 낙심하지 않는다, 자기에게는 속임수가 없다, 자기는 오직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게 하고 진리만을 전한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쪽의 마음이 귀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혼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됨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지 않으면,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바로, 마음과 육체 사이의 거리감, 마음이 있는 곳과 육체가 있는 곳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거리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사도로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못 받아들이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도됨의 자각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감으로부터, 거리로부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 어디까지의 거리, 내 마음은 어디 있고 육체는 어디 있기에 이런 거리감을 느낀다는 말인가?
오늘 1절에 보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서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창에 찔리고 하면서 죽으실 때에, 주님의 육체의 상하심과 죽으심에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던 천국에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보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그 틈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나도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주님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내 마음에 연합해서, 주님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천국으로 가 버리게 된 거에요.
그리고 내 육체는 지금 이 세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너머와 십자가 이쪽 세상으로 나뉘어져 마음과 육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집이 되고, 본사가 되고, 애인이 있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애인이고, 아버지가 우리 애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애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마치 본사에서 파견 나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곳이기에, 돌아가야 될 본사이고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 사이에 거리가 생겨 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생긴 상태에서 느끼는 게 '내가 보내어졌구나!'라는 느낌입니다.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은, 그곳에 안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곳이 편안하기 때문이고, 그곳이 좋기 때문이고, 그곳에 진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내 몸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거리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내 마음은 십자가 너머에 하늘에 있고, 내 몸은 십자가 이쪽 세상에 남아 있게 되는 이 거리감으로부터, 내가 지금 보내어져 있는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치 집 밖에 나와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 거리감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사도됨의 자각증상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에 일을 벌였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천국에 있고 십자가 이쪽에 내 육체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면서, 그 육체가 움직여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 거리감이 있을 때.

자! 이 거리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자각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상해요.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낙심할 것부터 말을 합니까?
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낙심할만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면, '목사님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인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기로 준비하는 신학생 중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때에, 한 번 설교에 삼천 명을 회개시킨 역사를 꿈꾸고 있지, 사도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생각조차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심할 일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전한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라고 회의를 합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질 때,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리면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할 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고린도교회를 보세요.
사도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누구도 아닌, 신약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성경으로 남긴 글을 쓴 당사자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고린도교회가 찌그렁빠그렁 합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균열이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보내어진 자로서, 내가 궁극적인 기쁨과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만족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십자가 너머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쪽에서 내가 지금 몸이 있음으로

사역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요.
십자가 너머에 계신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전파한다는 것은, 자기가 종 됐다는 걸 전파하는 것인데, 지금 육체가 남아 있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종 됐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종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 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고린도교인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랑의 내막을 파헤쳐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고린도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고린도교회를 위해서 종으로써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은 고린도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주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각증상의 두 번째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끄러움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 때는 발가벗고 고추를 다 드러내 놓고도 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이게 좀 크기 시작하면서, 아! 무지 부끄러움을 타게 돼요.
조선시대 여자들, 발목만 보여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니스커트를 입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나 결혼하고 싶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화문 네거리에서 수영복은 무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대상과 상황과 장소와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지가지로 많고 다양하고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중심에 놓고 말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뭘까요?

마음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십자가 너머로 가서 머물지 못하고, 십자가 이쪽에 남아 있으면서, 십자가 이쪽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채워 넣을 만한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 너머로 가지 못한 채 이쪽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음에 넣어서 채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볼 때, 천국의 그 좋은 모~든 영광된 복된 모든 것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천사들이 볼 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의 빛을 지금도 쐬고 있을 수도 있는 복음이 전파된 세상에서, 그 좋은 모든 하늘의 것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 이쪽 세상에서 혹시 마음에 채워 넣어서 좋을만한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침을 흘리며 다니는 일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탕자가,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주엄 열매를 먹겠다고, 돼지와 경쟁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 이겁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 이쪽 세상에서 좋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찾아 헤매는 것, 이게 또 거리감으로부터 사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거리감으로부터 나오는 자각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속임이라는 건 뱀의 간교함을 말합니다.
뱀의 간교함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에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있고, 육체가 여기 남아 있어서 거리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십자가 이쪽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간교함이 작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과 교인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천국을 얘기해도,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도, 전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교함이라는 거예요.
이 간교함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어떻게 나한테 자각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가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하는 말씀 속에는 간교함이 전혀 없게 되지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교인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좋은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헌금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이 땅에서 있다 그러면, 모든 말씀과 사역은 간교함이 섞여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간교함이 섞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오직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아버지 곁에, 주님 곁에 가 있는 사람만이 간교함이 없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다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혼탁하지 않고 진리를 전한다는 말은 혼탁하게 한다는 말이 '돌른테스'라는 말인데, 약을 다릴 때 이물질을 섞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말씀이 혼탁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거리감을 느끼는 마음가짐이라 그러면… 거리감이 뭐에요?
좋고, 만족하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 그러니까 집이고 본사이고 애인이 있는 곳이 다 하늘이에요.
이럴 때 말씀을 전하면 혼탁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과 땅에 있는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교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부터 말씀을 통해 다~ 거두어 들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수한 말씀의 의도이고 효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혼탁하게 되느냐?
전하는 사람의 마음자체가 십자가 이쪽 세상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래서 말씀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사상이 들어가고, 내가 존경하고 있는 학자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한 획득방법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녀 잘 키우는 법' 이따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삶’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 되는 법’ 이따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되는 법을 왜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가 있고 거리감을 느끼면, 보내진 자로서 아버지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진 자에게 반드시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되는 법을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혼탁하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느껴지는 자각증상이 있을 때, 내가 사도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에 가있을 때 절대 말씀이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에도 없고 신약 다른 곳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비유에요, 비유.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해석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축자영감설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글자 한 자 한 자가 다 기록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축자영감 된 말씀은 축자영감이 가능하게 했던, 그 똑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야 됩니다.
해석된다는 것은, 문자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활동의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를 말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문자의 말씀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탁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얘기를, 문자를 반복하는 거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냥 고대로 전한다.
이거는 순수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상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기회가 되려면 성령님의 해석과정이 내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넘어와 이쪽간의 거리감을 통해서, 그 거리감으로부터 나의 사도됨의 자각증상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마음이 있는 곳과 육체가 있는 곳 사이에 거리감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거리감이 사도의 필요조건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사도다, 아니다라는 자각증상을 가질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아버지하나님 이 자각증상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올바른 사도됨의 자리로 귀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